

晚唐 시기 座主와 門生の 관계와 문학상의 영향

- 皮日休와 鄭愚를 중심으로 -

박 혜 경*

국문초록

晚唐 懿宗 咸通 연간은 蠻族과 南詔와의 전쟁으로 唐 왕조의 국력이 크게 소모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 寒門 출신의 皮日休는 襄陽에서 학문을 닦으며 입신의 길을 모색하였다. 당시 과거제도에는 응시자들이 시험 전 禮部에 자신의 글을 바치는 省卷의 절차가 있었으며 進士에 대한 최종 선발권이 禮部侍郎 知貢擧에게 있었다. 皮日休는 세 차례 과거에 응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咸通 7년(866) 두 번째 응시한 과거에서 낙방한 뒤 『皮子文藪』를 省卷으로 바치고 이듬해 咸通 8년(867)에 進士 급제하였다. 皮日休는 省卷 속에 당시 현안에 대한 詩文을 수록하였는데 그중에는 그를 선발한 禮部侍郎 鄭愚와 연관된 것도 있었다. 鄭愚는 咸通 3년 嶺南西道 節度使로 임명되어 南詔와 蠻族의 침입으로부터 嶺南을 방어하는 중책을 맡았으나 열세에 빠지자 스스로 사임하였다. 中唐 이후 禮部侍郎과 급제자는 座主와 門生の 관계로 결속되어 朋黨을 이루기도 하였는데 그 여파가 咸通 연간에도 이어졌다. 鄭愚와 皮日休 사이에는 徐商과 裴坦·令狐綯·令狐滄 등의 인맥들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과거 牛黨에 속한 인물들이었다. 皮日休의 嶺南 지역 이민족 정책에 대한 詩文은 儒家의 정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이후 座主가 된 鄭愚의 정치적 입장도 반영되어 있다.

[주제어] 皮日休, 鄭愚, 懿宗 咸通, 嶺南, 南詔, 蠻族, 『皮子文藪』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座主·門生の 관계와 문학상의 영향 |
| II. 皮日休의 進士 及第와 鄭愚의 관계 | IV. 결 론 |

*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구전담 조교수 / zheneugean@hanmail.net

I. 머리말

中唐 시기 40여 년간 이어진 牛李黨爭은 元和 3년의 科擧로부터 시작되었다. 中唐 이후 과거제도에서 禮部侍郎 知貢擧와 급제자는 ‘座主’와 ‘門生’이라고 하는 관계를 형성하였고 같은 해 급제자들은 同年이라 불리며 서로를 비호하고 이끌며 朋黨을 형성하였다. 中唐 이후 과거제도는 이처럼 정치세력의 형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으며 당쟁 중 어느 세력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과거제도가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皮日休가 출사에 뜻을 두고 과거에 응시하던 시기에도 이러한 여파가 남아있었다. 皮日休는 咸通 8년(867) 禮部侍郎 鄭愚에 의해 進士 급제하였다. 皮日休는 세 차례 과거에 응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咸通 7년 낙방 후에 『皮子文藪』를 새로 엮어 省卷으로 바치고 이듬해 합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咸通 8년 皮日休를 발탁한 鄭愚와 皮日休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것이 皮日休의 詩文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鄭愚·皮日休와 관련된 역사 기록과 일화를 검토하여 그들이 座主와 門生의 관계를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겠다. Ⅲ장에서는 『皮子文藪』 속 詩文 중 鄭愚의 嶺南西道節度使 시절과 관련된 嶺南의 蠻族과 南詔 정책을 다룬 詩文을 검토하고 당시 역사 기록과 대조하여 그 함의를 분석하겠다. 이를 통해 皮日休의 급제 전 咸通 연간 현안에 대한 견해가 담긴 문학에 鄭愚와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탐구하겠다.

Ⅱ. 皮日休의 進士 及第와 鄭愚의 관계

1. 皮日休의 及第 전 행적

皮日休는 咸通 8년(867) 진사과에 급제한 晚唐의 문인으로 그가 스스로 엮은 詩文集 『皮子文藪』와 陸龜蒙 등과 나눈 시를 모은 『松陵集』이 전해진다.¹⁾ 그는 竟陵 사람으로 立身에 뜻을 둔 후에는 襄陽 鹿門에서 학문을 닦으며 창작에 힘썼다. 866년 과거에 낙방한 후 主考官에게 바치기 위해 엮은 『皮子文藪』의 「皮子世錄」에서 밝히길 “당조 이래로는 경릉에서 농사짓거나 녹문에 은거하면서 모두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의 皮日休에 이르렀습니다(自有唐已來, 或農竟陵, 或隱鹿門, 皆不拘冠冕, 以至皮子).”라고 하였다.²⁾ 寒門 출신의 皮日休는 권문세가의 자제들과 경쟁하며 학문과 文才로 관직에 나서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859년 당시 山南東道節度使 徐商의 幕府에 일 년여간 있었으며 徐商이 朝廷으로 돌아간 후에는 다시 鹿門으로 돌아간 은거하였다. 咸通 元年에는 江西觀察使로 있다가 長安으로 복귀하는 길의 裴寅을 襄陽에서 배알하고 함께 延

1) 『皮子文藪』는 10권으로 이루어진 皮日休의 詩文集이다. 皮日休는 省卷을 목적으로 이 서적을 엮었다. 『松陵集』은 皮日休가 급제 후 咸通 11~12년(870~871)에 蘇州刺史 崔璞의 막부 관료로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난 陸龜蒙을 비롯한 그 지역 인물들과 唱和한 작품을 모은 시문집이다. 『皮子文藪』에는 35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송릉집에는 335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2) 皮日休(著), 蕭滌非·鄭慶篤(整理), 『皮子文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7, 137~138쪽.

慶寺를 돌아본 후 「강서 배공을 모시고 양주 연경사를 둘러 봄(陪江西裴公遊襄州延慶寺)」이라는 시를 바쳤다. 이후 裴寅의 후임으로 온 裴坦과 裴謨 형제도 알현하였다. 그러다 드디어 九江 관료의 추천을 받아 863년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長安에 입성하였지만 실패하고 壽州로 돌아갔다.³⁾ 皮日休는 866년에도 과거에 실패한 후 다시 과거 응시를 위해 『皮子文藪』를 엮어 省卷하였고 867년 드디어 진사과에 급제하게 되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는 최소 세 차례 과거에 응시하였고 이는 中·晩唐 선비들에게는 많은 것이 아니었다. 『唐摭言』에는 수십 년간 과거에 응시했던 당시 선비들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선비 중에는 문학 창작에 몰두하며 詩名을 알리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도 많았다. 학문을 닦은 선비라면 모두 과거 급제를 열망하던 시기 皮日休가 867년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는 『皮子文藪』를 통해 증명한 儒學을 바탕으로 한 그의 학문과 時政에 대한 통찰, 그리고 이를 詩文으로 풀어낼 수 있는 文才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학문과 재능이 한 해 전인 866년에는 부족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요건이 867년 과거에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皮日休가 매년 많게는 1000여 명에 이르는 응시자 중에서 25명의 진사 급제자 명단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해 과거를 주관한 禮部侍郎 鄭愚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皮日休는 咸通 7년(866)에도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제하였으니 그 해 禮部侍郎이었던 趙鷺에게는 발탁되지 못한 것이다.⁴⁾ 趙鷺이 이듬해 華州刺史로 옮겨가고 鄭愚가 禮部侍郎에 오르면서 皮日休도 咸通 7년에 급제할 수 있었다. 물론 禮部侍郎의 선발 기준이나 출제된 詩題에 대한 皮日休의 답안도 급제의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中·晩唐 시기 수많은 응시자 중 30명 내외의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의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禮部試 전에 고시 장 밖에서 이미 당락이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 禮部試에 응시하기 전 응시자들은 禮部에 평소 자신의 글을 바쳐야 하는 省卷 제도가 있어 시험관들은 사전에 응시자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응시자들은 사회 유력인사나 고위 관료들에게 자신의 글을 바치는 行卷을 통하여 禮部에 추천해줄기를 청하였다. 令狐滄가 父親 令狐綯의 권력으로 과거에 급제하였다는 상소가 있었다는 기록은 咸通 연간에도 권력가의 자제가 과거에서 혜택을 받아 관직을 얻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이 때문에 경도에 모인 응시자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 집단의 권력을 신진 관료 발탁으로 공고히 하고자 하는 기존 정치세력 간의 경쟁도 치열했다. 皮日休는 이처럼 복잡한 정치적 힘이 작용하던 시기 과거에 응시하고 급제한 것이다.

3) 『皮子文藪』 권8 「內辭」에는 “일휴는 벼슬 없이 있다가 구강의 추천을 받아 예부시에 응시하기 위하여 장안으로 올라와 영승리에서 묵었습니다(日休自布衣, 受九江之薦, 與計偕, 寓止永崇里).”라는 서술이 있다. 「計偕」란 舉자가 禮部試에 응시하기 위하여 상경하는 것을 말한다. 永崇里는 당시 長安 성내의 지구 중 하나이다. 「洛中寒食二首」에서도 “상소를 바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비를 방문하였다(獻書未納問淮肥)”라고 하였다. 九江은 彭蠡湖(지금의 鄱陽湖) 서북, 廬山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현재 九江市 濰陽區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唐 開元 21년 이래로는 江南西道에 속했다. 李福標는 皮日休의 연도별 동선으로 보았을 때 862년 10월 九江에서 추천을 받고 863년 과거에 응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李福標, 『皮陸年譜』,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2011, 119쪽.

4) 『登科記考』 卷23 咸通 7년에는 “禮部侍郎趙鷺”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5) 주 66) 참조.

2. 進士 及第와 禮部侍郎 鄭愚

(1) 咸通 8년 禮部侍郎 鄭愚

皮日休와 鄭愚의 관계에 대하여 현전하는 최초 기록은 唐代의 雜事를 기록한 서적인 『玉天子』속 “피일휴는 남해 정우의 문생이었다(皮日休, 南海鄭愚門生).”라는 기록이다. 이후 『太平廣記』卷265, 輕薄1, 「崔昭符」에도 “皮日休는 남해 정우의 문생이었다(皮日休南海鄭愚門生)”라는 동일 기록 있는데 『玉天子』를 그 출처로 하고 있다. 元代的 서적인 『唐才子傳』에도 같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晚唐·五代부터 皮日休가 鄭愚의 문생이라는 설이 전해져왔음을 알 수 있다. 唐末·五代 사람 孫廣憲이 편찬한 『北夢瑣言』卷2에는 皮日休와 鄭愚의 일화가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皮日休의 이전 자는 일소이고 이후 자는 습미이다. 양양 경릉인이다. 녹문산에 은거하며 학문에 힘쓰며 스스로 ‘간기포의’라고 칭했다. 대중 연간에 방말 급제하였다. 예부시랑 정우가 그 외모가 볼품없음을 보고 놀리며 말하기를 “그대는 재학은 심히 풍부하나 어찌 외 눈인가?”라고 하였다.⁶⁾ 일휴가 이에 대답하기를 “사랑께서는 한 눈으로 두 눈을 폐하시면 안됩니다. 사람으로 그 말을 폐하지 말라고 하였습시다.”라고 하였다(日休先字逸少, 後字襲美. 襄陽竟陵人也. 業文隱鹿門山中, 自號間氣布衣. 大中榜未及第. 禮部侍郎鄭愚, 以其貌不揚, 戲之曰, “子之才學甚富, 如一目何?” 休對曰, “侍郎不可以一目廢二目, 謂不以人廢言也).⁷⁾

北宋 사람 王讜의 『唐語林』에도 동일 기록이 있어 이 이야기가 유명한 일화로 후대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唐末·五대의 풍속과 문인들의 일화를 기록한 『北夢瑣言』의 성격으로 볼 때 이 이야기가 사실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皮日休와 鄭愚가 당시 師生 이상으로 결속하였던 門生과 座主의 사이는 아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鄭愚가 皮日休의 文才를 상당히 인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鄭愚가 출제한 省題詩의 詩題는 무엇이었을까? 中·晚唐 시기 과거 시험 문제는 출제자인 知貢舉의 사상이 반영되곤 하였는데 鄭愚가 출제한 시제는 당시에 세간에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粵大記』卷17에서는 또 “합통 8년에 지공거로 있었는데 구제에는 시는 옛 시구를 시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선비들이 익힌 것에 따라 시편을 지어냈다. 당시 조서를 내려 운남의 자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는데 정우가 이 일로써 출제하자 선비 대부분이 붓을 놓아버렸다. 합격자 명단이 알려졌을 때 정홍업이 일등으로 급제하였는데 여론이 두루 정우를 칭송하였다(咸通八年知貢舉. 舊制, 詩開多出古句爲題, 士習蹈成篇. 時詔放雲南子弟還國, 愚以此試之, 士多擱筆. 及放榜, 鄭洪業第一人及第, 輿論咸頌其公云).”라고 기록하고 있다.⁸⁾ 咸通 7년 高駢이 交趾에서 南詔를 대파하고 그해 11월 천하를 대사면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⁹⁾ 雲南 지역은 南詔

6) 판본에 따라 ‘一目’과 ‘二目’을 ‘一目’과 ‘二目’로 표기한 것도 있으나 전체 맥락상 ‘目’의 오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7) 孫光憲, 『北夢瑣言』,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8) 郭棐, 『粵大記』, 中山大學出版社, 1998년, 黃國聲·鄧貴忠校點本(李福標, 앞의 책, 173~174쪽 재인용).

9) 『資治通鑑』卷250, 唐紀66, “이달에 고병은 남조 만족을 교지에서 대파하였고 죽이고 포획한 것이 매우 많았으며 마침내 교

의 근거지였다. 당 왕조는 南詔를 비롯한 주변 蠻族에 대한 회유책으로 그 자제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관직을 주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는 그들을 억류하였다가 南詔를 交趾에서 모두 몰아낸 후 천하 대사면의 일환으로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닌가 한다.¹⁰⁾ 鄭愚는 咸通 3년에 嶺南西道節度使로 있으면서 南詔·南蠻과의 전투 경험이 있었는데 마침 그가 禮部侍郎으로 있던 해에 대사면이 있었으므로 이를 시제로 제출한 것이다. 皮日休가 작성한 省題詩는 전해지지 않지만 『皮子文藪』 속에는 嶺南 蠻族과 南詔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 「愚賦」와 「三差詩」와 같은 詩文을 지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皮日休는 몇 번의 낙방 끝에 합격하였으나 ‘榜末及第’라는 가장 낮은 순위로 합격자 명단에 올랐고 이후 吏部試인 博學宏詞에 합격하지 못하자 長安을 떠났다.¹¹⁾ 皮日休와 鄭愚의 관계는 咸通 8년 당시 과거제도와 정치 지형을 반영한다. 皮日休와 鄭愚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鄭愚가 어떠한 인물이었으며 어떻게 皮日休를 발탁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2) 鄭愚는 어떻게 禮部侍郎이 되었나

鄭愚에 관한 正史의 기록은 咸通 3년에 桂管觀察使¹²⁾에서 嶺南西道節度使¹³⁾로 임명되고 이듬해 시작한 일에 관한 것뿐이다. 鄭愚는 당시 交趾를 함락하고 邕州로 침입해오는 南詔와 蠻族의 연합군에 대한 진압의 임무를 맡았는데 전쟁이 격화되자 문관으로서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며 물러났다. 正史는 그가 禮部侍郎에 임명된 것이나 嶺南西道節度使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필기소설류의 서적 속 산발적인 기록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鄭愚가 咸通 연간 禮部侍郎에 있었다는 기록과 그의 관직 생활 중의 몇 가지 단편적인 일화들이 전해진다. 鄭愚는 開成 2년 進士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이 역시 확실하지 않다. 『登科記考』에 開成 2년에는 그해 진사 급제자가 4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급제자 중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李商隱이 포함되어 있다. 李商隱과 함께 ‘鄭憲’이라는 인물도 급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徐松은 그가 李商隱과 和詩한 鄭氏 성의 인물일 것이라는 추정을 덧붙였다.¹⁴⁾ 李商隱의 시 중에 「和鄭愚贈汝陽王孫家箏妓二十韻」라는 시가 있는데 徐松이 추측한 인

지성을 포위하였다(是月，駢大破南詔蠻於交趾，殺獲甚衆，遂圍交趾城.)”

- 10) 『資治通鑑』卷250, 唐紀66, “11월 입자일에(11일)에 천하를 사면하였다. 안남·응주·서천의 여러 군대에 조서를 내려 각 강역을 보위하고 다시 남조를 진공하지 말도록 하였다. 류둥에게는 깨우쳐 타이르는 일을 맡겼는데 예전의 우호 관계로 고칠 수 있다면 일절 문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十一月，壬子，赦天下。詔安南·邕州·西川諸軍各保疆域，勿復進攻南詔；委劉潼曉諭，如能更修舊好，一切不問.)”
- 11) 長安을 떠난 그는 869년(咸通 10년) 蘇州刺史 崔璞의 막부에서 종사하였으며 그곳에서 陸龜蒙을 만났다. 한 해 남짓한 기간 동안 陸龜蒙을 비롯하여 그 지역 인물들과 시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唱和한 시들을 모아 870년에 『松陵集』으로 엮었다. 皮日休는 874년(乾符 元年) 전후에 太常博士가 되었는데 『舊唐書·熙宗本紀』廣明 元年(880) 11월에는 “(黃巢가) 태상박사 피일휴와 진사 심운상을 (한림)학사로 삼았다(以太常博士皮日休·進士沈雲翔爲學士)”라는 기록이 있다. 黃巢의 난 이후의 행적은 분명치 않아서 그의 말년과 죽음에 대해서는 증명하기 어려운 여러 설이 있다.
- 12) 桂管은 당시 桂州(지금의 雲南 桂林)에 설치한 행정구역을 말하며 이곳에는 經略觀察使를 두고 군무와 정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지역은 南詔와 충돌이 잦은 지역이기도 했다.
- 13) 嶺南은 중국 대륙의 최남단 지역으로서 唐代에 州縣을 설치하였으며 嶺南 45州는 廣州·桂州·容州·邕州·安南의 5개 都督府에 속했다. 懿宗 咸通 3년(862)에 嶺南을東西로 나누었는데 嶺南西道節度使는 嶺南西道の 최고위 장관으로 邕州에 주둔하였으며 邕州·桂州·安南을 관할했다.
- 14) 『李義山詩集』에는 「정우가 여왕 양손의 쟁을 연주하는 기녀에게 준 20 운에 화합(和鄭愚贈汝陽王孫家箏妓二十韻)」이라는

물이 鄭憲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鄭愚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全唐詩』卷597와 卷870에는 鄭愚의 시 「幼作」·「茶詩」·「醉題廣州使院」·「擬權寵褒體贈鄂縣李令及奇朝右」 네 수와 小傳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醉題廣州使院」는 廣州 지역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과 탐관오리 태수의 폭정을 풍유한 것이다. 『全唐詩』에 수록된 小傳의 내용은 “鄭愚는 番禺¹⁵⁾ 사람이다. 咸通 中 桂管觀察使를 지냈고 이후 입조하여 禮部侍郎이 되었다. 黃巢의 난이 평정된 후에는 조정을 나와 南海를 진수하였으며 마침내는 尙書左僕射(宰相)에 올랐다. 시 두 수가 있다(鄭愚, 番禺人. 咸通中, 觀察桂管, 入爲禮部侍郎. 黃巢平後, 出鎮南海, 終尙書左僕射. 詩二首).” 라고 서술하고 있다. 史書에서는 그가 桂管觀察使와 嶺南西道節度使를 지낸 것 외에는 기록이 없으나 『全唐詩』의 小傳에서는 오히려 嶺南西道節度使의 기록은 없고 禮部侍郎 이후의 관직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수록 시의 편수도 차이가 있다.

『登科記考』卷23의 咸通 8년 기록에는 그해 30명의 進士를 선발하였으며 鄭洪業이 鄭愚 밑에서 장원급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⁶⁾ 그 외 그해 진사 급제자로 牛徽¹⁷⁾·韋昭度¹⁸⁾·韋承貽¹⁹⁾·崔昭符²⁰⁾·皮日休·宋口的 이름이 있으며 主考官으로 “지공거는 예부시랑 정우(知貢學禮部侍郎鄭愚)”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서적은 清代 徐松이 科學와 관련된 고서적 속의 기록을 총망라하여 唐·五代의 進士科와 諸科의 선발 인원수와 신원이 알려진 인명, 지공거를 편년으로 정리한 것이다. 『唐書』와 『唐詩紀事』·『唐摭言』 등 정사와 필기 소설류 서적의 기록에 근거하여 그해에 급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성명과 그 근거의 출처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 徐松이 검토한 역대 자료 중에서도 咸通 8년의 知貢學로 서술된 인물은 鄭愚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舊唐書·懿宗本紀』咸通 7년 11월 기록에 禮部郎中으로 李景溫을 吏部員外郎으로 高湘을 임명하여 인물 선발을 담당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²¹⁾ 進士科는 매년 이른 봄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常科였으므로 이들이 담당하는 것은 咸通 8년의 고시이다. 禮部郎中은 尙書禮部 아래 司의 장관이므로 禮部의 副長官인 禮部侍郎보다 직급이 낮았다.²²⁾ 아쉽게도 『舊唐書』와 『新唐書』에 남아있는 鄭愚의 기록은 咸通 3년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으나 咸通 8년 봄 禮部侍郎으로 기록된 다른 인물도 없다. 따라서 皮日休와 正洪業이 鄭愚 밑에서 진사급제하였다는 기록이 그가 예부시랑이었다는 근거로서 제시되는 것이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 파악된다. 『唐詩紀事』卷67, 「歐陽解」에도 “역시 「燕詩」를 지어서 主考官 鄭愚에게 바쳤다(亦爲燕詩以獻

시가 있다. 李商隱이 鄭愚에게 화답하여 지은 것인데 이 시에서 鄭愚는 洛陽에서 먼 곳으로 떠나는 상황으로 그려져 있다. 鄭愚는 급제 후 桂州로 가서 桂管觀察使를 지냈다. 이 시는 그가 桂州로 떠나기 직전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15) 지금의 廣東省 廣州市에 해당하며 廣州 중남부에 위치한 嶺南문화의 중요한 발원지이다. 鄭愚가 이후 영남의 관리가 되었던 것도 그의 출신 지역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6) 『登科記考』卷23, “(咸通)八年, 進士三十人. 鄭洪業壯元. 唐詩紀事洪業咸通八年鄭愚下第一人擢第.”

17) 牛僧孺의 손자로 『舊唐書』에 관련 기록이 있다.

18) 『唐摭言』卷7에 빈한한 선비였다가 발탁되어 이후 中書舍人에 오른 韋昭度和 관련한 일화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영공 위소도는 어려서 빈한하여 늘 왼쪽 거리에 있는 스님 정광대사에 의지하여 스님의 시주를 따라다녔다(韋令公昭度少貧囊, 常依左街僧錄淨光大師, 隨僧齋粥).”

19) 『唐詩紀事』, 『唐摭言』卷15에 관련 일화가 있다.

20) 『太平廣記』卷265에는 「玉泉子」를 출처로 한 崔昭符가 皮日休를 멸시하여 모욕을 준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21) 『舊唐書』卷19, 懿宗本紀 19, 咸通 7년 11월, “예부시랑 이경온과 이부원외랑 고상으로 하여금 뛰어난 인물을 선발하게 하였다(以禮部郎中李景溫·吏部員外郎高湘試拔萃選人).”

22) 尙書에 속한 禮部의 장관인 禮部尙書와 직급의 차이는 있으나 예부시랑은 거의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主司鄭愚)라고 기록하고 있다. 明代 사람 郭裴가 廣東의 지방사를 기록한 『粵大記』 권17에서는 “강승훈이 정우가 번진에 있을 때 방어를 잘하였다는 것을 위에 고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이로써 정우의 공을 알게 되어 곧 예부시랑으로 삼았다(承訓上言愚在鎮善守禦狀, 朝廷於是始知愚之功, 卽召爲禮部侍郎).”라고 기재하고 있다.

『北夢瑣言』에는 鄭愚가 皮日休의 외모를 놀린 일²³⁾ 외에도 그가 行卷의 예를 올리는 자리에서 특이한 옷차림을 하고 나와 주목을 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다.²⁴⁾ 이 일화는 『唐摭言』 卷12, 「기행을 보여 명성을 얻음(設奇活譽)」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鄭愚가 예부시랑에 있었다가 南海로 왔다고 서술하고 있다.²⁵⁾ 그가 예부시랑 이후에 南海를 진수하였다는 기록은 卷9 속 「楊收相報楊元价」의 “당 승상 양수가 영남으로 폄적 가 죽었다. 이때 상서 정우는 남해를 진수하고 있었다(唐丞相楊收, 貶死嶺外. 于時鄭愚尚書鎮南海).”에도 나타난다. 楊收가 賜死된 것은 咸通 10년(869) 2월의 일이므로 이 서술이 사실이라면 869년 尙書 鄭愚는 이미 南海로 진수되었다는 말이 되므로 黃巢의 난 이후에 남해로 진수되었다는 『全唐詩』 속 小傳 기록과는 다르다.

Ⅲ. 座主·門生の 관계와 문학상의 영향

1. 中·晩唐 시기 座主와 門生

顧炎武의 『日知錄』 卷17 중 “座主門生”에는 “공거 신분의 선비는 有司를 座主로 삼으며 스스로를 門生이라고 불렀다(貢學之士, 以有司爲座主, 而自稱門生).”라고 기록하고 있다. 唐代 문인들의 글에 종종 등장하는 ‘有司’는 곧 禮部試를 주관하는 知貢學 禮部侍郎을 말한다. 座主와 門生이라는 칭호는 盛唐 시기에 나타났는데 中唐에 이르러서는 그 관계가 견고해졌다고 한다.²⁶⁾ 開元 3년(736)부터 禮部侍郎이 知貢學를 담당하면서 과거 시험에서 禮部侍郎의 권위가 상승하였다.²⁷⁾ 傅璇琮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서 진사 급제자를 결정하는 것은 한 명의 知貢學에게 전권이 있었다고 한다.²⁸⁾ 『登科古記』의 기록을 살펴보면 보면 中唐 시기 매년 30

23) 『北夢瑣言』 卷二, 「皮日休獻書」.

24) 『北夢瑣言』 卷三, 「鄭愚尚書錦半臂」. 이 일은 『唐摭言』·『唐詩紀事』·『太平廣記』에도 기록되어 있다.

25) 『唐摭言』 卷12, “합동 연간에 정우는 예부시랑으로 있다가 남해를 진수하게 되었다. 당시 최위공이 형남에 있었는데 정우는 비단 저고리를 팔의 절반이 나오게 말아 올리고 최위공을 배알하여 공이 이를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咸通中, 鄭愚自禮部侍郎鎮南海, 時崔魏公在荊南, 愚著錦襖子半臂袖卷調之, 公大奇之).”

26) “최주와 문생의 칭호는 대략 상당 시기에 출현하였고 중당 이후에는 비교적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였다(座主門生の稱謂大約出現在盛唐, 至中唐以後形成較隱固的關係).” 陶易, 『唐五代的座主與門生』, 『文史天地』 9, 2016, 44쪽.

27) 『舊唐書』, 「玄宗本紀」, “(개원 24년) 3월 을미일에 공거의 심사 업무를 예부시랑에게 옮겨 주관하게 하였다((開元24年)三月乙未, 始移考功貢學, 遣禮部侍郎掌之).”

28) “첫째 고시를 주관하는 사람은 지공거 1명이었으며, 둘째 통방은 1~2명(혹은 그 이상)일 수 있으나 반드시 지공거와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다. 셋째 인재를 추천만 하였을 뿐 추천 이외에는 시험장의 다른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급제자)취사 결정의 권리는 결국 지공거에게 있었다(一, 主文者僅一人, 卽知貢學者. 二, 所謂通榜, 可以是一人, 也可以是二人(或二人以上), 但須與知貢學者關係較爲密切. 三, 通榜僅是推薦人才, 在推薦以外似未有插手科場等情事, 決定取舍之權還在於知貢學者.).” 傅璇琮, 『唐代科舉與文學』, 北京: 中華書局, 2020, 234쪽.

여 명의 진사를 선발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傅璇琮는 매년 600~700명, 많게는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進士試에 응시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⁹⁾ 唐代에는 시험지에 응시자의 이름을 가리는 糊名 제도도 시행하지 않던 시기였으므로 고시 전에 知貢擧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이 급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정 대신이나 권문세족의 자제들은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寒士를 선발한 知貢擧의 이야기는 인구에 회자되며 명예로 여겨지기도 하였던 것 같다. 그중 晚唐 시기 유명한 일화가 『北夢瑣言』 卷2에 수록되어 있는데 咸通 10년(870) 지공거 高湜이 乘億·許棠·聶夷中을 선발하여 세간에서 그 공정성을 칭송한 이야기다. 咸通 8년(867)에 급제한 인물 중에 皮日休와 韋昭度도 빈한한 출신의 선비였지만 鄭愚에 의해 발탁되었으며 그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진다.³⁰⁾ 이외에도 『唐摭言』 卷7에 寒門 선비를 선발한 李德裕와 元和 11년(816) 李逢吉의 일화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회자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寒門 출신이 급제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座主와 門生の 관계는 권력화되어 봉당이 형성되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權德輿는 元和 11년 禮部侍郎이 되어 세 차례나 知貢擧로서 70여 명의 進士를 선발하였고,³¹⁾ 그중 고위직에 오른 사람도 많았다.³²⁾ 中唐의 牛黨의 핵심 인물이었던 牛僧孺와 李宗閔·楊嗣復은 모두 그의 문하생이었다.³³⁾ 文宗 大和 8년(834)에 皮日休가 출생하였고 당시는 李德裕와 李宗閔이 각각 봉당을 만들어 서로 다투고 배척하던 시기였다. 文宗이 이를 근심하여 “하북의 도적은 제거하기는 쉬우나 조정의 봉당을 제거하기는 어렵다(去河北賊易, 去朝廷朋黨難)”³⁴⁾라 한탄할 만큼 심각하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李德裕는 憲宗 시기 재상을 지낸 李吉甫의 아들로 門蔭으로 관직에 올랐으나 李宗閔은 과거 출신의 신진 관료였으며 이후 世族 출신의 관료와 치열한 정치투쟁을 벌였다. 이 朋黨 정치의 여파가 皮日休가 출사에 뜻을 둔 咸通 연간에도 남아있었다. 皮日休는 급제 전에 徐商·裴坦·鄭愚·令狐滈·令狐綯를 배알하고 글을 바쳤다. 앞서 살펴본 듯이 鄭愚는 崔弦에게 行卷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崔弦과 令狐綯은 淮南節度使로서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가 있었다. 中·晚唐 시기에는 座主가 그의 門生을 인솔하여 자신의 과거 座主를 배알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니 과거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각기 정치적 친소에 의한 인맥이 촘촘히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주지하듯이 中唐 이후 牛李黨爭이 격화되었고 그 시작은 과거제도와 관련이 깊다.³⁶⁾ 皮日休보다 조금 앞

29) 傅璇琮, 위의 책, 235쪽.

30) 주21) 참조.

31) 『全唐詩·權德輿傳』, “덕종이 그 재물을 전해 듣고 불려서 태상박사를 시키고 다시 좌보궐 겸 제고로 임명했다. 중서사인에 올랐으며 예부시랑을 역임하여 세 차례 지공거를 맡았다(德宗聞其材, 召爲太常博士, 改左補闕, 兼制誥, 進中書舍人, 歷禮部侍郎, 三知貢擧).”

32) 『權文恭集』의 서문을 그의 문생 楊嗣復이 지었는데 그중에 “예부시랑에 오르셔서 진사를 일흔두 명을 발탁하였고 난새와 봉황과 같은 걸출한 인재들이 그 문하에 모여 보궐·재상의 직위에 오른 사람이 십여 명에 이른다(及爲禮部侍郎, 擢進士第七十有二, 鸞鳳杞梓, 擧集其門, 登輔相之位者, 前後十人).”라고 서술하고 있다.

33) 『舊唐書』 권176, 列傳126, “양사복과 우승유·이종민은 모두 권덕여의 문생이었다. 정과 뜻이 서로 맞아 진퇴와 취사 등 많은 것을 함께 하였다(嗣復與牛僧孺·李宗閔皆權德輿門生, 情義相得, 進退取捨, 多與之同).”

34) 『資治通鑑』 卷245, 唐紀 61.

35) 陶易, 앞의 논문, 44쪽.

36) 元和 3년(808) 牛僧孺·皇甫湜·李宗閔이 制科에 응시하여 당시 정치를 비판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직언하는 글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재상이었던 李吉甫는 憲宗에게 읍소하여 당시 主考官이었던 吏部侍郎 楊於陵과 吏部員外郎 韋貫之를 편직시켰

선 세대의 李商隱은 봉당정치의 최대 피해자로 언급된다.³⁷⁾ 李商隱은 「與陶進士書」에서 令狐綯가 開成 2년(873) 知貢舉 高錕에게 은근하게 李商隱을 추천한 일을 언급하였다.³⁸⁾ 그는 牛黨의 令狐楚에게 재능을 인정 받았으며 令狐綯의 추천으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는데 급제 이후 李黨의 일파인 王茂元의 사위가 되면서 牛黨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李商隱이 스스로 令狐綯의 추천을 언급한 것으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과거 전에 조정의 관료가 응시자를 주교관에게 추천하는 것이 반드시 숨겨야 하는 위법적인 부정행위는 아니었으며 이와 같은 추천이 급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 급제 이후에는 자신을 추천하고 발탁한 관료들의 정치세력에 동참하는 것이 암묵적인 약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皮日休의 嶺南과 南詔 정책에 대한 의견

(1) 皮日休 詩文 속 嶺南과 南詔 정책에 대한 의견

南詔는 安史의 난 이후로 吐蕃과 연합하여 西川(현재 四川 지역 일대)를 침략하였고 咸通 연간에는 安南(지금의 베트남 북부)³⁹⁾ 지역의 이민족과 연합하거나 탐관의 폭정에 저항하는 주민들과 연합하여 交趾(지금의 베트남 하노이)와 邕州(지금의 南寧)를 점령하였다. 당 왕조는 南詔를 몰아내고 빼앗긴 지역을 수복하기 위하여 수년간 군사를 일으켜 원정을 나서면서 수많은 군사력과 재정을 소모하고 있었다.

皮日休는 〈憂賦〉序에서 “초야의 신하 일휴가 남만이 귀순해오지 않아 천하의 징발로 백성의 생존력이 장차 피폐해지는 것을 보고 이에 부를 지어 그 뜻을 나타내었습니다(草茅臣日休, 見南蠻不賓, 天下徵發, 民力將敝, 乃為賦以見其志).”라고 창작 동기를 밝혔다. 그는 南蠻에 대하여 “위로는 태고부터 粵에 민족이 있었으니 우매하기가 타고난 명이 혼탁한 듯하였고 어리석기가 마치 금수와 같았습니다. 당시 그때에는 삼왕의 도라도 교화시킬 수 없었고 오제의 연못으로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上自太古, 粵有民族, 巔若混命, 愚如視肉. 當時時也, 雖三王之道不能化, 五帝之澤不能沐)”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先秦 시기 ‘粵’은 長江 이남의 연해 지역을 말하며 이곳은 咸通 연간에는 南詔와 전쟁이 벌어졌던 嶺南 지역에 속한다. 皮日休는 〈憂賦〉에서 長江 이남의 이민족의 열등함을 賦의 만연체로 서술하면서 중화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왕조의 문인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가 말하고자 바는 이민족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 왕조의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時政에 대한 자신의 근심[憂]을 서술한 것이다. 당시 긴급한 이민족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생각을 밝혔다.

다. 牛僧孺·皇甫湜·李宗閔 등도 오랜 기간 벼슬길이 순탄치 못하였는데 이것이 牛李黨爭의 시작이었다. 門蔭을 통하여 대대로 벼슬을 세습하는 문벌귀족 관료와 과거를 통하여 관직에 오르는 寒門 출신 신진 관료의 정치투쟁으로서 과거제도가 이 두 세력의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朱子彥, 「唐代科舉制度和牛李黨爭」, 『濟南大學學報』, 26: 4, 2016, 13쪽.

37) 李商隱은 837년 진사 급제하고 858년 사망하였는데 皮日休가 867년 급제하였으니 30년의 차이가 난다.

38) 『樊南文集詳註』卷8.

39) 安南은 현재 베트남의 북부 지역에 해당한다. 嶺南 45주에 포함된다.

장차 군대를 일으킬 것을 명하시어 사방의 오랑캐에게 힘을 과시하십시오. 이미 오령⁴⁰⁾ 이남을 침범하였으니 다시 변경의 위협을 평정하십시오. 쓸모없는 사막을 가지고 유한한 백성의 재물을 고갈시킵니다. 선왕께서는 그것을 황복이라 하였고 후계자는 이를 기미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몸소 전쟁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한고조께서는 백등에서의 치욕이 있었고,⁴¹⁾ 수양제는 안문에서 포위당한 일이⁴²⁾ 있었으니 이것이 신의 근심입니다(命將興師, 夸力四夷. 既侵嶺徼, 又定邊陲. 以無用之沙漠, 竭有限之民資. 是以先王謂之荒服, 後嗣謂之羈縻. 豈可使親帥武旅, 躬揮戰塵. 故漢高有白登之辱, 隋煬有鴈門之圍. 是臣憂也).”

그는 군사력을 강화하여 이미 시작된 전쟁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기를 청하였고 이득이 없는 영토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는 선왕들의 정책을 따르고 실패한 전쟁은 반면교사로 삼기를 청하였다. 皮日休의 이민족 정책에 대한 생각은 漢 元帝 시기 賈捐之의 상소문의 영향이 보인다. 그는 「三羞詩」의 序에서 “揚雄이 ‘朱崖⁴³⁾를 끊은 것은 賈捐之⁴⁴⁾의 힘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랑캐가 우리의 옷을 바꾸어버렸을 것이다.”⁴⁵⁾라고 하지 않았던가(嗚呼! 揚子不云夫: “朱崖之絕, 捐之力也. 否則介鱗, 易我衣裳.” 其是之謂耶?).”라고 서술하였다.⁴⁶⁾ 『資治通鑑』의 漢 元帝 初元 2년(기원전 47년)의 기록에는 朱崖 지역 南越의 거듭되는 반란에 대하여 대규모 원정을 시행할 것이냐를 두고 元帝가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賈捐之가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일이 기록되어 있다. 상소의 요지는 南蠻은 미개하며 풍습이 달라 교화되기 어려우니 고대 성왕들도 억지로 복속시키려 하지 않았으나 秦과 漢의 선왕들이 남만을 정벌하기 위해 원정에 나섰다가 오히려 위기에 처했으므로 이득이 없는 먼 땅을 끊어내어 국력과 민력을 소모하는 것을 중단하고 중원의 문제에 전력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40) 五嶺은 長江과 珠江 유역이 나뉘는 산줄기와 산지를 말한다. 江西·湖南·廣東·廣西省의 변경에 동서남북으로 뻗어있는 산맥을 五嶺이라고 하였다.

41) ‘白登之圍’라고도 하며 기원전 200년 漢高祖가 匈奴를 정벌하고자 진격하였다가 오히려 반격을 받아 白登山에 고립되었던 일을 말한다.

42) 615년 여름 隋煬帝가 突厥을 토벌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鴈門郡城으로 들어갔다가 돌궐군에게 포위당한 일을 말한다.

43) 南詔 인근 지역 ‘朱崖’를 가리킨다. 지금은 海南省 海口市 일대이다.

44) 賈捐之은 西漢 賈誼의 증손자이다.

45) 이 구절은 揚雄의 『法言』 卷13, 「孝至」에 “주애를 끊어낸 것은 가연지의 힘이였다. 그러지 않았다면 버리지 같은 오랑캐들이 우리의 의상을 바꾸어놓았을 것이다(朱崖之絕, 捐之力也, 否則介鱗易我衣裳).”를 인용한 것이다. 『後漢書』 卷48에 수록된 「楊終傳」 속에도 “이전 효원제께서 주애의 군을 버리고 광무제께서 서역의 나라들을 끊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버리지들이 우리의 의상을 바꾸어놓았을 것이다(故孝元棄珠崖之郡, 光武絕西域之國, 不以介鱗易我衣裳).”라는 구절이 있다.

46) 『皮子文藪』 卷10, 「三羞詩」 제2수 序.

47) 賈捐之의 상소 내용은 “신이 듣기로 요·순·우왕의 성스러운 덕화는 그 땅이 수 천리에 불과하였으니 서쪽으로는 사막을 덮고 동쪽으로는 바다로 나아가고 사방에도 교화가 미쳤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교화에 함께 하고자 하면 그들을 다스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억지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臣聞堯·舜·禹之聖德, 地方不過數千里, 西被流沙, 東漸于海, 朔南暨聲教, 言欲與聲教則治之, 不欲與者不強治也)로 시작하여 고대 성왕들도 먼 이민족들을 억지로 복속시키려 하지 않음을 강조하였고 군사를 동원한 정벌이 오히려 중원의 위기를 초래함을 과거 역사를 예로 주장하면서 “오늘날 관동의 민중이 오랫동안 곤경에 빠져 길거리를 떠돕니다. 인정이 부모보다 친밀한 것이 없으며 즐거움은 부부만 한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처를 남에게 시집보내고 자식을 파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법령으로도 금지할 수 없고 도의로도 멈추게 할 수 없으니 이것은 사직의 근심거리입니다. 오늘날 폐하께서 차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군사를 몰아 큰 바다에 몰아넣으려 하시니 아득한 땅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시려는 것이지 기근을 구제하여 나라의 근간인 백성을 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옵길 주애를 버리시고 오로지 관동의 근심을 구휼하기에 쓰십시오(今關東民衆久困, 流離道路. 人情莫親父母, 莫樂夫婦;

皮日休는 南詔 토벌 정책이 백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목도하고 이를 「三羞詩」 중 하나로 지어 『皮子文藪』 속에도 수록하였다. 『資治通鑑』 중 懿宗 咸通 원년부터 咸通 7년 사이에 許昌의 병사를 징집한 기록은 咸通 3(862)년⁴⁸⁾과 咸通 5(864)년⁴⁹⁾에 있다. 皮日休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咸通 7년 壽州에서 長安으로 상경하였으므로 이 여정 중 許昌을 지나며 이 사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三羞詩」 序에 “남만이 우리 교지를 포위하여 조서를 받들어 허창 병사 이천명을 징집하여 이를 정벌하였습니다. 그 정벌이 재차 이뤄지니 전투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蠻圍我趾, 奉詔徵許兵二千征之, 其征且再, 有戰皆歿)”⁵⁰⁾는 咸通 7년의 高駘의 지휘하에 南詔를 대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래 「三羞詩」 중 제1구~제10구는 당시 交趾 지역의 인사와 용인의 실책과 관료의 비리를 풍유하고 있다.

南荒不擇吏, 남황에서 관리를 가려내지 않아
 致我交趾覆. 우리 교지가 전복되기에 이르렀네.
 綿聯三四年, 삼사 년 내내 이어지더니
 流為中夏辱. 흘러들어와 중하의 치욕이 되네.
 儒者鬪即退, 겁쟁이는 싸우자 달아나고
 武者兵則黷. 용자는 싸우다 욕을 당하네.
 軍庸滿天下, 유품 실은 수레가 천하에 가득한데
 戰將多金玉. 전쟁의 장수는 금옥이 많기도 하다.
 刮則齊民癩, 긁어낸 즉 백성의 악창이오,
 分為猛士祿. 나누어 용사의 녹으로 삼네.

至嫁妻·賣子, 法不能禁, 義不能止, 此社稷之憂也. 今陛下不忍惻惻之忿, 欲驅土衆擠之大海之中, 快心幽冥之地, 非所以救助饑饉, 保全元元也. ……願遂棄珠厓, 專用恤關東為憂.”라고 하였다. 한원제는 가연지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해 봄에 “주애군을 철수하고 백성 중에 의를 흠모하고 안으로 귀속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편의대로 처하게 하고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하지 마라(其罷珠厓郡, 民有慕義欲內屬, 便處之; 不欲, 勿強).”라는 조서를 내렸다. 「三羞詩」 序에서 皮日休는 揚雄이 가연지로 인하여 한왕조가 오히려 오랑캐에 의해 전복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인용하였다. 이처럼 皮日休의 남쪽 이민족에 대한 정책은 요·순·우 임금의 이민족 정책을 계승하여 교화를 따르는 자만 수용하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여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통치자의 욕망을 경계하는 정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생각이 이처럼 유가 지식인의 원칙론에 바탕을 두었기에 당시 咸通 연간 심각한 군사 충돌의 위기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三羞詩」를 통하여 오로지 무력으로 南詔를 강력하게 제압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宣宗 시기 무력으로 제압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세족 출신의 정치집단들이었다.

- 48) 『資治通鑑』 卷250, 唐紀66, 懿宗 咸通 壬午(3년)에는 “남조가 다시 안남을 노략질하자 경략사 왕관이 수차례 와서 긴급함을 알렸다. 조정에서는 이진 호남관찰사 채습을 시켜 이를 대신하게 하고 이어 許(忠武의 처소)·滑·徐·汴·荆·襄·潭·鄂 등의 道에서 각각 병사 3만을 징발하여 채습에게 주어 이를 방어하도록 하였다. 병사의 세력이 성대해지자 만족은 이윽고 물러나 떠났다(南詔復寇安南, 經略使王寬數來告急, 朝廷以前湖南觀察使蔡襲代之, 仍發許·滑·徐·汴·荆·襄·潭·鄂等道兵各三萬人授襲以禦之. 兵勢既盛, 蠻遂引去).”라는 기록이 있다. 咸通 元年 忠武(忠武의 처소는 許州)와 義成의 장수와 병사가 王式을 좇아 裴甫를 진압하였지만 南詔의 진압에 동원된 기록은 咸通 元年 이후로는 3년이 가장 이른다.
- 49) 咸通 5년 3월 기록에는 “강승훈(鄭愚의 후임으로 온 嶺南西道節度使)이 용주에 도착하였는데 만족의 노략질이 더 심해졌다. 조서를 내려서 許·滑·靑·汴·兗·鄆·宣·潤 팔도에 있는 병사를 징발하여 그에게 주도록 하였다(康承訓至邕州, 蠻寇益熾, 詔發許·滑·靑·汴·兗·鄆·宣·潤八道兵以授之. 承訓不設斥候; 南詔帥羣蠻近六萬寇邕州, 將入境, 承訓乃遣六道兵凡萬人拒之, 以獠為導, 給之).”라는 기록이 있다.
- 50) 「三羞詩」 제2수.

皮日休는 嶺南 藩鎮의 문제를 시문을 통해 은근히 풍유하기도 하였다. 『七愛詩』 중 「李太尉」⁵¹⁾는 수년간 南蠻과 南詔를 제압하지 못하는 武臣들에 대한 풍자가 담겨있다. 李太尉는 貞元 3년(787)에 太尉 겸 中書令으로 책봉된 李晟이다. 그는 대대로 武官을 지낸 세족 출신으로 18세에 군대에 들어가 河西節度使 王忠嗣를 따라 吐蕃을 토벌하였으며 그 이후 軍란이나 朱泚의 난을 진압한 공을 세운 武官이다.⁵²⁾

吾愛李太尉, 나는 이태위를 사랑하니
 崛起定中原. 굴기해 중원을 평정하셨네.
 驍勇十萬兵, 날쌔고 용맹한 십만 병사로
 四面圍國門. 사면으로 나라 문을 에워쌌네.
 一戰收王畿, 일전에 왕기를 수복하시고
 一叱散妖氛. 일갈로 전운을 흩어버리셨네.

皮日休는 그가 혐오하는 당왕조의 역사 인물 일곱 명을 제재로 「七愛詩」를 지었는데 그 이면에는 국세가 기울어 가는 咸通 연간에는 과거와 같은 걸출한 인물이 없다는 비판이 내포되어 있다. 李晟의 무훈과 용맹함을 찬양한 것도 수년간 전쟁에도 평정되지 않는 嶺南 지역 武官들의 무능을 애둘러 비판한 것이다.

(2) 鄭愚의 嶺南 방어 실패

당 왕조와 南蠻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咸通 3년(862)에 桂管觀察使로 있던 鄭愚가 嶺南西道節度使에 임명되어 토벌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⁵³⁾ 그는 긴박한 전시 중에 대규모 군사 작전 지휘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咸通 3년 가을 南詔가 蠻族 5만을 이끌고 와 安南에서 노략질을 하자 安南都護 蔡襲이 조정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정은 鄭愚에게 荊南·湖南·桂管 지역에서 모인 병사 5천을 지휘하여 방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결국 12월 南詔가 交趾를 함락시키고 蔡襲도 전사하고 말았다. 南詔와 蠻族 연합군은 기세를 몰아 정우가 지키고 있는 邕州를 압박해 왔다. 『資治通鑑』 咸通 4년(863) 3~4월의 기록에는 鄭愚가 조정에 사임을 청한 일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남만이 강의 좌우를 노략질하다가 옹주까지 침범해 압박했다. 정우는 두려워 스스로 유신은 장수의 전략이 없으니 무신을 임용하기를 청하였다. 조정에서는 의무절도사 강승훈을 불러 궁궐에 오게 하여 그에게 정우를 대신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어 조서를 내려 군교 몇 명과 사졸 수백 명을 선발해 스스로

51) 『皮子文藪』 卷10.

52) 『舊唐書』 卷133, 「李晟傳」, “이욱의 자는 良器로 농우 임조 사람이다. 조부는 李思恭, 부친은 李欽으로 대를 이어 隴右의 裨將이었다. 밀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십팔 세에 종군하였으며 신장은 육척에 용감하기가 비할 자 없었다. 당시 河西節度使 王忠嗣를 따라 吐蕃을 격퇴하였다(李晟字良器, 隴右臨洮人. 祖思恭, 父欽, 代居隴右爲裨將. 善騎射, 年十八從軍, 身長六尺, 勇敢絕倫. 時河西節度使王忠嗣擊吐蕃).”

53) 『舊唐書·懿宗本紀』에서는 “용관경략사 정우를 광주자사로 삼고 영남동도절도사·관찰처치등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以邕管經略使鄭愚爲廣州刺史, 充嶺南東道節度·觀察處置等使).”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新唐書·懿宗本紀』와 『資治通鑑』·『粵大記』에서는 모두 전임 嶺南西道節度使 蔡京을 대신하여 정우를 임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르게 하였다(南蠻寇左·右江, 浸逼邕州. 鄭愚懼, 自言儒臣無將略, 請任武臣. 朝廷召義武節度使康承誨詣闕, 欲使之代愚, 仍詔選軍校數人·士卒數百人自隨).

李福標는 皮日休와 鄭愚가 미묘한 관계였으며 이것이 皮日休가 가장 낮은 순위로 급제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⁵⁴⁾ 미묘한 관계의 원인은 「三羞詩」와 「憂賦」가 정우의 南詔 진압 실패를 정면으로 비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三羞詩」의 “남황에서 관리를 가려내지 않아(南荒不擇吏)”가 鄭愚를 저격한 것이며 “갑쟁이는 싸우자 달아나고, 용자는 싸우다 욕을 당하네(儒者鬪即退, 武者兵則黷).”가 鄭愚가 사임을 청하며 스스로 “유신은 장수의 전략이 없으니 무신을 임용해주시기를 청합니다(儒臣無將略, 請任武臣)”라는 말을 가져와 비꼰 것이므로 일부러 皮日休를 선발하여 자신의 청렴함을 세상에 보여 과거의 과실을 가리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것이다.⁵⁵⁾ 그러나 과거 급제를 목표로 한 皮日休가 禮部侍郎 鄭愚에게 省卷하며 그와 같은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비록 그가 儒臣으로서 直諫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였을 수 있으나 鄭愚의 말을 비꼬아 비판한 글을 당사자에게 바치는 것은 예법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었으므로 구태여 이런 선택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皮日休가 풍유한 것은 宣宗 大中 말기부터 咸通 6년에 이르는 기간의 蠻族과 南詔에 대한 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시기는 그가 출사에 뜻을 두고 노력하던 때였으므로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하여 그간 학문을 바탕으로 논하고 당시 정치와 관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詩經』의 정신에 따라 풍유한 것이다. 皮日休가 “남황에서 관리를 가려내지 않아, 우리 교지가 전복되기에 이르렀네(南荒不擇吏, 致我交趾覆)”라고 한 것은 大中 12년의 安南都護 李琢과 咸通 연간 초 嶺南西道節度使 蔡京 등과 같은 安南 지역 관료의 인사와 감찰 실패에 대한 풍유일 것이다. 『資治通鑑』의 기록에 따르면 李琢은 욕심이 많아 安南都護 蔡襲을 견제하기 위하여 蔡襲이 이끄는 군의 병력을 감축시킬 것을 주청하여 조정이 이를 수용하여 조치하였다. 이것은 安南 지역의 방어력을 약화시켜 이후 南詔의 침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交趾를 빼앗기고 만 것이다.⁵⁶⁾ 또 蔡京은 지위를 이용하여 安南 지역 토착민의 재산을 수탈하고 蠻族 추장을 살해하여 이에 원한을 품은 蠻族 부족들이 南詔를 끌어들이어 변경을 넘어 쳐들어오게 하는 위기를 초래하였다.⁵⁷⁾ 鄭愚

54) 李福標, 위의 책, 173쪽

55) 李福標, 위의 책, 174쪽.

56) 『資治通鑑』 卷250, 唐紀66, “채습이 여러 도의 병사를 거느리고 안남에 있었는데 채경이 그것을 시기하여 공을 세울까 두려워 주청하기를 “남만이 멀리 달아나 변경에는 근심이 없는데 무사들이 공을 바라고 함부로 수병들을 차지하고서 공수된 물자를 허비합니다. 대개 궁벽하고 길도 멀어서 다시 감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제멋대로 간사하게 됩니다. 수병을 해체하여 본래 도로 각기 돌려보내기를 청합니다.” 조정에서 이를 따랐다(蔡襲將諸道兵在安南, 蔡京忌之, 恐其立功, 奏稱: “南蠻遠遁, 邊徼無虞, 武夫邀功, 妄占戍兵, 虛費餽運. 蓋以荒陬路遠, 難於覆驗, 故得肆其姦詐. 請罷戍兵, 各還本道.” 朝廷從之.)”

57) 『新唐書·南詔傳』에서는 李琢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대중 시기 이탁은 안남경략사로 있었는데 가혹하고 탐욕스러워서 소금 한 말로 소 한 마리와 바꾸었다. 오랑캐 주민들이 견디지 못하고 남조 장수 단추천과 결탁하여 안남도호부를 점령하고 ‘백의멸명군’이라 칭하였다(大中時, 李琢爲安南經略使, 苛墨自私, 以斗鹽易一牛, 夷人不堪, 結南詔將段酋遷陷安南都隄護府, 號白衣沒命軍).” 『資治通鑑』 卷249, 唐紀65, 宣宗 大中 12년(858)의 기록에도 唐 安南都隄護 李琢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 토착민들을 수탈하고 만족 추장을 죽이자 여러 만족 부족들이 불만을 품고 급기야 南詔를 이끌어 변경을 침입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또 李琢은 戍兵을 없애고 만족 추장에게만 방어를 맡기자 결국에는 南詔와 결탁하여 安南의 우환이 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가 嶺南西道節度使가 된 것도 蔡京이 조정으로부터 自盡의 징벌을 받고 그 후임으로 임명된 것이었다.⁵⁸⁾ 皮日休가 비판한 잘못된 인사는 咸通 3년의 南詔의 交趾 함락을 초래한 전임자들의 무능과 비리였다. 이는 禮部侍郎으로 온 鄭愚의 정치적 상황에도 크게 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며 오히려 어느 정도 그를 옹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皮日休의 견해는 당시 그와 鄭愚 두 사람 사이의 정치적 인맥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鄭愚 외에도 皮日休가 관직을 얻기 위해 行卷한 대상에는 咸通 7년 宰相 중 한 명인 徐商을 비롯하여 이후 재상에 오른 裴坦⁵⁹⁾과 宣宗의 충신 令狐綯과 그의 아들 令狐滄도 있었다. 鄭愚가 최종적으로 皮日休를 발탁하였으나 그 과정에는 이 인맥들의 영향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皮日休와 徐商의 인연은 宣宗 大中 12년(858년) 徐商이 山南東道節度使로 있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皮子文藪』 권6, 「酒箴」 중 “양양의 원후가 취사·취민이라는 칭호를 듣고 피자를 바로 잡으며 말하기를……(襄陽元侯聞醉士醉民之稱也, 訂皮子曰……)”이라는 구절이 있다. ‘元侯’란 지방 장관 중의 우두머리를 말하므로 襄陽의 수장인 山南東道節度使를 가리킨다. 皮日休는 「酒箴」의 序에서 그가 襄陽의 鹿門에 거처할 때 자칭 “醉民”·“醉士”라 하였다고 하였는데 徐商과 배석한 연회에서 술을 마시지 않자 徐商이 그 호칭에 대하여 물었던 일을 서술한 것이다. 皮日休는 853년(大中 7년) 고향 竟陵을 떠나 襄陽으로 가서 鹿門山에 들어가 은거를 시작하였으며 그 시기 徐商을 만났다. 이후 徐商은 咸通 6년(865년) 6월에 兵部侍郎, 同平章事로 임명되었다.⁶⁰⁾ 咸通 연간의 과거제도에는 주교관이 급제자들을 이끌고 中書省에서 宰相의 집무실인 都堂으로 가서 배알하는 ‘過堂’이라는 절차가 있었다.⁶¹⁾ 이 절차대로라면 咸通 8년 급제한 皮日休는 鄭愚의 인솔하에 徐商을 배알하였을 것이다. 中·晚唐 시기 과거제도를 통하여 구관료와 신진 관료들이 권력 집단을 형성해 갔던 것을 보았을 때 皮日休 역시 그 전철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 皮日休와 鄭愚는 모두 令狐綯와도 연관되어 있었다.⁶²⁾ 咸通 元年 襄陽에서부터 皮日休와 인연이 있던 裴坦도 權眞學 시절 令狐滄를 진사로 발탁한 것으로 상소를 받았을 정도로 令狐綯·令狐滄

58) 이에 관해서 『資治通鑑』 卷250, 唐紀 66의 咸通 3년 가을의 기록에 鄭愚가 嶺南西道節度使로 임명된 경위가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영남서도절도사 채경이 가혹한 정치를 펼치고 포락지형을 시행하여 경내에 원성이 자자했다. 이윽고 채주의 군사들에게 쫓겨나 등주로 달아나 칙서와 공토사의 인장을 위조하여 마을의 장정과 근방의 토군을 모아 응주를 공격하였다. 무리는 이미 오합지졸인지라 모이자마자 무너지고 패배하여 계주로 가서 의지하였으나 계주 사람들이 그 분열되는 것을 미워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경은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없자 칙서로 애주의 사호를 깎아 내렸다. 관으로 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되돌아가 영릉에 이르자 칙서를 내려 자진하도록 하고 계관관찰사 정우를 영남서도절도사로 삼았다(嶺南西道節度使蔡京為政苛慘, 設炮烙之刑, 闔境怨之, 遂為邕州軍士所逐, 奔藤州, 詐為敕書及攻討使印, 募鄉丁及旁側土軍以攻邕州. 衆既烏合, 會輒潰敗, 往依桂州, 桂州人怨其分裂, 不納. 京無所自容, 敕貶崖州司戶, 不肯之官; 還, 至零陵, 敕賜自盡. 以桂管觀察使鄭愚為嶺南西道節度使.)”

59) 皮日休는 咸通 2년(861) 裴坦이 江西觀察使로 부임해 올 때 그와 함께 온 형제 裴謨에게 「奉獻致政裴祕監」라는 시를 바쳤는데 『皮子文藪』 卷10에도 이를 수록하였다. 裴坦은 859년 勸眞學를 지낸 적이 있으며 僖宗 때에는 宰相에 올랐다.

60) 『資治通鑑』 卷250, 唐紀66, “以御史大夫徐商為兵部侍郎·同平章事.”

61) 『唐摭言』 권3에는 급제 후의 主考官의 집을 찾아가 감사의 예를 올리는 것을 기록한 「師恩」과 함께 이 「過堂」의 그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62) 皮日休의 《松陵集·序》에는 과거 급제 전 令狐滄와의 만남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咸通 7년 병부령 영호 원회께서 회남에 계시고 지금의 중서사인 흥농공께서는 비릉에 계셨다. 일휴는 시문으로 발탁되어 명에 따라 창화라는 명을 받자와 시문을 편축에 채우고 그 위에 이름을 적었다(咸通七年, 今兵部令狐員外在淮南, 今中書舍人弘農公毗陵, 皮日休皆以詞獲幸, 悉蒙以所命之和. 各盈編軸, 亦有名其首者).” 皮日休, 陸龜蒙 等撰, 王錫九 校注, 《松陵集校注》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2018, 2쪽.

부자와 친밀한 관계였다.⁶³⁾ 中唐 이후의 座主와 文生은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고 같은 해 급제자인 ‘同年’ 관계의 인물들은 서로를 비호하였다.⁶⁴⁾ 令狐綯과 高階는 牛黨과 뜻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므로 鄭愚 역시 급제 후 牛黨의 인사로 분류되어 일정 정도 집단의 뜻과 이익을 따랐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 인맥 안에서 皮日休는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IV. 맺음말

晚唐 문인 皮日休는 866년 『皮子文藪』를 엮어 禮部侍郎 鄭愚에게 바치고 867년 34세의 나이로 進士科에 급제하였다. 中唐 이후 과거제도가 확대되고 과거 출신 관료의 수가 증가하면서 응시자가 증가하고 경쟁도 치열해 졌다. 中唐 이후 과거에서 禮部侍郎은 최종적인 진사 선발권을 가졌다. 과거 급제자와 예부시랑은 門生과 座主의 관계를 맺고 門生은 座主를 스승처럼 모시면서 座主가 속한 정치세력에 합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과거제도와 조정의 정치 풍토에서 皮日休는 자신의 학문과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시문을 지어 『皮子文藪』에 수록하면서 鄭愚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皮日休는 당시 정치와 국가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시문을 지어 수록하였는데 그중에는 당시 가장 절박한 문제였던 嶺南지역 蠻族의 침입과 南詔 정책에 관한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 鄭愚는 咸通 3년 嶺南西道節度使에 임명되어 邕州로 침입해오는 南詔를 토벌하는 중책을 맡았으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皮日休는 咸通 3년 南詔와의 전쟁에 징발되어 희생된 許昌의 백성들을 애도하는 「三羞詩」를 지었는데 그 안에는 전쟁의 책임자인 관료들에 대한 비판도 표현되어 있다. 그 비판은 咸通 6년까지 이어온 南詔에 대한 정책과 嶺南 지역 관리들의 무능과 비리, 文官 출신 관료를 따르지 않는 군대의 기강 문제들을 포함하였다. 그는 儒家 정치관에 입각한 이민족 정책을 옹호하였다. 皮日休의 시문에는 鄭愚의 정치적 입장과 자신이 속한 정치세력의 입장도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皮日休는 전쟁에 징집되어 희생되는 백성의 목소리를 지배계층에 전달하는 시인의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儒臣의 임무를 다하고자 하였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劉昫, 『舊唐書』,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歐陽修 外, 『新唐書』,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司馬光, 『資治通鑑』,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63) 이 일은 《舊唐書》 卷172, 〈令狐綯傳〉에 기록되어 있다.

64) 朱子彦, 앞의 논문, 12쪽.

- 彭定求, 『全唐詩』,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孫光憲, 『北夢瑣言』,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王定保, 『唐摭言』,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許有功, 『唐詩紀事』,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李昉, 『太平廣記』,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辛文房, 『唐才子傳』,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皮日休(著), 蕭滌非·鄭慶篤(整理), 『皮子文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7.
 皮日休, 陸龜蒙 等撰, 王錫九 校注, 『松陵集校注』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2018.
 李福標, 『皮陸年譜』,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2011.
 傅璇琮, 『唐代科學與文學』, 北京: 中華書局, 2020.
 程千帆, 『唐代進士行卷與文學』, 上海: 中西書局, 2019.
 李定廣, 『唐末五代亂世文學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朱子彥, 「唐代科學制度和牛李黨爭」, 『濟南大學學報』 26: 4, 2016.
 陶易, 「唐五代的座主與門生」, 『文史天地』 9, 2016.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26일에 투고되어,
 2021년 12월 22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1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1월 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Zuozhu and Mensheng on
Literature During the Late Tang Dynasty
- Focusing on Zhengyu and Pirixiu -

Park, Hyekyung*

Pirixiu(皮日休), a literary man in the late Tang Dynasty(晚唐), passed the civil service Jinshike(進士科) examination at the age of 34 in 867. He took the examination at 30 for the first time in 863, but failed and failed again in 866. Pirixiu from common landlord economy retired to Lumen(鹿門) in Xiangyang(襄陽) and devoted xingjuan(行卷) brushing up on studies and calling on bureaucrats. He then collected 『Piziwensou(皮子文藪)』 in 866, dedicated it to libushilang(禮部侍郎) Zhengyu(鄭愚) and passed an examination in 867. After the middle Tang Dynasty(中唐) the system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was expanded and increased the number of bureaucrats. It resulted in the increase of applicants and the overheated competition. After the middle Tang Dynasty(中唐) libushilang(禮部侍郎) was a government position which has the autonomy to select successful candidates in the examination. In general a successful examinee and libushilang(禮部侍郎) build a relationship between zuozhu(門生) and wensheng(座主), regard wensheng(座主) as a mentor and then join his political group. Therefore, it is likely that 『Piziwensou』 contains writings which could present his scholarship and talent to Zhengyu(鄭愚) and based on political stand of Zhengyu(鄭愚). Pirixiu especially gathered satirical poems expressing political opinions of the time in 『Piziwensou』 and mentioned his view on Nanzhao(南詔) which was the most imminent task at the moment through essays and poetries. Zhengyu(鄭愚) was appointed as Lingnanxidao jiedushi(嶺南西道節度使) in Xiantong(咸通) 3 and took a heavy responsibility which leads a punitive force in Nanzhao(南詔). However he was not able to handle his post and resign. The criticism of Pirixiu did not target Zhengyu(鄭愚), but criticized policies on Nanzhao(南詔) succeeded until Xiantong(咸通) 6, the inability and corruption of officials in Lingnan(嶺南), and the military discipline which did not follow the officials from civil service. He defended the policy based on Ruja(儒家) in political views and supported large-scale military activities. His political attitude seems as a choice to have

*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been considered the political stand of Zhengyu(鄭愚). Most of all, he tried to explain his awareness and talent on the duty of a civil official by performing a responsibility of a poet who communicates the voice of people drafted and sacrificed a long way away to the ruling classes.

[Keywords] Pirixiu, Zhengyu, Yizong xiantong, Lingnan, Nanzhao, Manzu, 『Piziwensou』